

간호대학생의 혐오민감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회복력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조 정 희¹⁾ · 조 옥 희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인 간호사의 업무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간호사의 이직은 간호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1]. 2022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연평균 5.1%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활동하지 않는 인력이 전체 간호사의 27.2%이고,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이직률은 2020년 기준 47.7%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2]. 신규간호사의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불규칙한 근무시간, 과중한 업무 등과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은 물론[3], 전문직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신적 지각인 전문직 자아개념[4]이 잘 확립되도록 하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재직 의도[5], 이직 의도[6]의 선행요인으로서, 학부 교육과정부터 직업생활을 거쳐 지속적으로 발달하므로[7] 간호대학생 시기에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것은 확실한 직업관을 형성하고 간호사의 전문직 역할 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8].

한편,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환경에서 종종 대변, 점액, 소변, 악취가 나는 상처, 사망 환자와의 접촉과 같은 다양한 자극으로부터 혐오감을 경험한다[9]. 간호대학생의 이러한 혐오민감성이 높을수록 환자를 향한 돌봄 행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 이러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비전문적이라고 생각하여 감정을 억제하고 잘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11]. 선행연구에서 의대생은 혐오민감성이 자신의 전공 선택의 중요한 예측인자였다고[12], 또한, 노인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대상 연구[13]에서 혐오민감성이 정서적 피로와 이직의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전문직 자아개념에 혐오민감성이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된다. 하지만, 국내에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혐오민감성을 다룬 연구가 거의 없어 그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직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학습성취에 기반한 현장실무능력 강화 방침에 따라 임상실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이로 인해 간호대학생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8]. 높은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과 행동 문제 및 낮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14] 부정적인 실습 경험 및 소진을 초래하여[8] 전문직 자아개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15]. 따라서 임상실습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것은 올바른 전문직 자아개념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최근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돕는 관점에서 회복탄력성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힘든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회복탄력성에 의해 축적된 성공 경험은 간호대학생의 적응 능력과 안정감을 증진시킨다[16]. 회복탄력성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나누어 줄 수 있고, 유연한 삶의 태도를

주요어 : 간호대학생; 전문직 자아개념; 혐오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회복력

1) 공주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https://orcid.org/0000-0002-6964-3608>)

2)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https://orcid.org/0000-0002-8882-675X>) (교신저자 E-mail: ohcho@kongju.ac.kr)

투고일: 2022년 11월 5일 수정일: 2022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3일

가지고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외부 환경 적응력이 높다고 보고되었다[17]. 따라서 비슷한 임상실습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학생일지라도 회복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을 결정짓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이 변수들이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선행요인으로서의 관련성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18], 임상실습만족도[1], 임상실습스트레스[8]와의 관계 수준을 검증하였고, 성격강점[19], 자기효능감[3] 등의 개인적 요인과 성적[1], 전공만족도[3], 학과적응력[19] 등과 같은 학업 관련 요인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임을 보고하였으나 간호대학생의 혐오민감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회복력, 전문직 자아개념의 통합적인 관계를 조사하고 전문직 자아개념의 영향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혐오민감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회복력,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하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혐오민감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회복력,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혐오민감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회복력,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혐오민감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회복력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C 도와 K 도에 소재한 3개 대학의 간호

학과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모집하였다.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위해 필요한 표본의 수는 효과 크기 0.20 [20],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0, 예측변수 9개로 하였을 때 최소 105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 동안 온라인 기반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는 총 111명이었고, 이 중 불안정한 응답을 한 1부를 제외해 총 110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

● 혐오민감성

혐오민감성은 Haidt 등[21]이 개발한 도구를 Lee 등[22]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동물-상기 혐오 6문항, 핵심혐오 6문항, 오염혐오 3문항의 총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혐오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등[22]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 .70$ 이었다.

●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Beck과 Srivastava [23]가 개발하고 Kim과 Lee [24]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4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실습 교육 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6문항, 실습업무 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의 총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Lee [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 .89$ 이었다.

● 회복력

회복력은 Connord와 Davidson [25]이 개발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을 Baek 등[2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강인성 9문항, 인내력 8문항, 낙관성 4문항, 지지 2문항, 영성 2문항의 총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onnor와 Davidson [2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Baek 등 [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은 Arthur [4]가 개발하고 Seo [27]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항은 총 27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전문적 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의 총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eo [2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이었다. 해당 학교 학과장 및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학과 소식 전달 매체를 통해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게시하였다. 본 연구설명문을 읽고 설문에 관심을 표명하는 학생은 링크된 URL로 접속하여 Google form을 활용한 상세 연구설명문을 읽고 동의서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온라인 동의서가 작성되면 구조화된 설문에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약 15분가량 소요되었으며 응답이 완료된 자료는 연구자의 Google 계정 데이터 서버에 자동 저장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8.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혐오민감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회복력,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는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한 후,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혐오민감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회복력,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NU_IRB_2022-080)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전 연구목적과 내용, 연구 참여 방법 등에 대해 학과 전달 매체에 게시하여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진행하였다. 링크된 URL 연결 시 첫 화면에 상세한 연구설명문을 제시하였고, 두 번째 화면에는 온라인 동의서를 제시하여 동의를 표하는 박스에 체크가 된 경우에만 다음 화

면으로 넘어가 본 설문조사가 진행하도록 하였다. 설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으로 코드화하여 통계에 활용될 것이며 본 연구자의 지문으로 잠금 설정된 노트북에 보관되고 연구 종료 3년 후 관련 데이터는 삭제할 예정임을 알렸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29명(26.4%), 여학생이 81명(73.6%)이었고, 평균 연령은 24.75세이었다. 3학년이 67명(60.9%)이었고, 경제상태는 ‘보통’이 66명(60.0%)이었다. 지원동기로 ‘적성과 흥미’가 48명(43.6%), 입학유형은 ‘수시’가 90명(81.8%)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성적은 ‘상위’가 50명(45.5%)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77명(70.0%)이었고 졸업 후 희망하는 직종은 ‘임상간호사’가 72명(65.5%)으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좋음’이 48명(43.6%)이었고, 성격은 ‘내향적’ 57명(51.8%), ‘외향적’ 44명(40.0%)이었으며 임상실습만족도는 ‘만족’이 65명(59.1%)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희망하는 부서로 ‘특수 파트’가 57명(51.8%)이었고, 희망하지 않는 부서도 ‘특수 파트’가 56명(50.9%)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실습 후 간호직업에 대한 진로 결정 생각 변화로는 ‘변화없이 유지되었다’가 55명(50.0%)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대상자의 혐오민감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회복력,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

대상자의 혐오민감성은 4점 만점의 평균 1.86 ± 0.62 점이었고, 임상실습스트레스는 5점 만점의 평균 2.81 ± 0.62 점이었다. 회복력은 4점 만점의 2.65 ± 0.61 점이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의 2.91 ± 0.44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는 지원 동기($F=5.43, p=.006$), 학교 성적($F=3.24, p=.043$), 전공만족도($t=-6.38, p<.001$), 희망 직종($F=9.30, p<.001$), 주관적 건강 상태($F=4.31, p=.016$), 성격($F=25.29, p<.001$), 임상실습만족도($t=-5.36, p<.001$), 임상실습 후 간호직업에 대한 진로 결정 생각 변화($F=10.4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지원동기가 적성과 흥미인 학생이 취업 목적인 학생보다 유의하고 높았고, 학교 성적은 그룹간의 차이가 없었다. 전공만족도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이 불만족하는 학생보다, 졸업 후 임상간호

〈Table 1〉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ean±S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	
			Mean±SD	t or F (p/post-hoc)
Gender	Male	29 (26.4)	78.00±12.88	0.27
	Female	81 (73.6)	78.70±11.65	(.787)
Age (years)	<25	81 (73.6)	78.68±11.66	0.24
	≥25	29 (26.4)	78.07±12.86	(.814)
		24.75±5.32		
Grade	Junior	67 (60.9)	77.01±11.49	-1.66
	Senior	43 (39.1)	80.86±12.36	(.099)
Economic status	Poor	24 (21.8)	76.10±12.38	2.47
	Moderate	66 (60.0)	77.58±11.90	(.089)
	Good	20 (18.2)	83.13±10.87	
Application motivation	Others recommend ^a	24 (21.8)	76.54±10.38	5.43
	Aptitude or interest ^b	48 (43.6)	82.54±11.82	(.006)
	Purpose of employment ^c	38 (34.5)	74.68±11.68	b>c
Admission type	Rolling admission	90 (81.8)	78.30±11.58	-0.41
	Regular admission	20 (18.2)	79.50±13.70	(.686)
School record	Low rank	28 (25.5)	76.25±14.55	3.24
	Middle rank	32 (29.1)	75.66±11.33	(.043)
	High rank	50 (45.5)	81.62±10.04	
Satisfaction of major	Unsatisfied ^a	33 (30.0)	69.03± 9.92	-6.38
	Satisfied ^b	77 (70.0)	82.58±10.34	(<.001)
Desired occupation	Clinical nurse ^a	72 (65.5)	81.82±11.00	9.30
	Official ^b	20 (18.2)	73.05±11.51	(.001)
	etc ^c	18 (16.4)	71.39±11.14	a>b,c
Subject health status	Bad ^a	17 (15.5)	73.41±14.45	4.31
	Moderate ^b	45 (40.9)	76.76±10.71	(.016)
	Good ^c	48 (43.6)	81.98±11.27	a<c
Character	Introvert ^a	57 (51.8)	72.09±10.50	25.29
	Extrovert ^b	44 (40.0)	86.02± 8.94	(<.001)
	Do not know ^c	9 (8.2)	82.56±10.74	a<b=c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Unsatisfied ^a	45 (40.9)	71.98±11.84	-5.36
	Satisfied ^b	65 (59.1)	83.05± 9.76	(<.001)
Preferred department	General ward	43 (39.1)	78.49±11.95	1.09
	Special Part(ICU, OR, ER)	57 (51.8)	79.44±12.09	(.339)
	Public health center	10 (9.1)	73.40±10.67	
Non-preferred department	General ward	45 (40.9)	80.78±11.59	1.42
	Special Part(ICU, OR, ER)	56 (50.9)	77.13±12.49	(.247)
	Public health center	9 (8.2)	75.89± 8.87	
Change of thinking about career path after clinical practice	Maintain ^a	55 (50.0)	81.18±11.68	10.47
	Positive change ^b	27 (24.5)	82.93±9.35	(<.001)
	Negative change ^c	14 (12.7)	67.00±11.20	a=b>c=d
	Do not know ^d	14 (12.7)	71.07±7.34	

ICU=intensive care unit; OR=operating room; ER=emergency room.

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공무원, 기타인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학생이 나쁜 학생보다, 성격이 외향적 또는 모르겠다 라고 답한 학생이 내성적인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임상실습만족도는 만족하는 학생이 불만족하는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임상실습 후 간호직업에 대한 진로 결정 생각이 유지 또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학생이 부정적으로 변화 또는 모르겠다 라고 답한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대상자의 혐오민감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회복력,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실습스트레스($r=-.37, p<.001$)와 음의 상관관계로, 회복력($r=.66,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요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범위는 0.53~0.95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4~1.86으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 분석을 한 결과 Durbin-Watson 검정값은 2.11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간 자기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잔차의 정규성 분포가정을 만족하였으며 관찰치들의 영향력 정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관찰치의 Cook's distance 값이 최대 0.074로 기준치인 1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영향점으로 추정되

는 관찰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지원동기, 학교 성적, 전공만족도, 희망 직종, 주관적 건강 상태, 성격,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 후 직업에 대한 진로 결정 생각 변화 중 사후 분석 결과 그룹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학교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더미처리하였고 종속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임상실습스트레스, 회복력과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23.83, p<.001$)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65.0%이었다.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회복력($\beta=.38, p<.001$)이었고, 그 다음으로 성격($\beta=.32, p<.001$), 전공만족도($\beta=.28, p<.001$), 임상실습스트레스($\beta=-.18, p=.007$)순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혐오민감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회복력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증진을 위한 증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회복력, 성격, 전공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로 확인되었고, 그 중 회복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대상의 회복력과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인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

〈Table 2〉 The Score of Disgust Sensitivity,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N=110)

Variables	M±SD	Range
Disgust sensitivity	1.86±0.62	0-4
Clinical practice stress	2.81±0.62	1-5
Resilience	2.65±0.61	0-4
Professional self-concept	2.91±0.44	1-4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N=110)

Variables	Disgust sensitivity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r (p)	r (p)	r (p)
Disgust sensitivity	1		
Clinical practice stress	.03 (.732)	1	
Resilience	.09 (.344)	-.19 (.050)	1
Professional self-concept	-.05 (.574)	-.37 (<.001)	.66 (<.001)

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4학년 간호대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18]에서 회복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주요 영향 요인이었다. 3~4학년 간호대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선행연구[15]에서는 회복탄력성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omas와 Asselin [28]은 임상 교육 환경에서 간호대학생들의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임상 교육자의 지지, 스트레스 및 자기 관리 교육, 성찰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회복력은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하거나 힘든 상황을 대처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개인의 발달적 특성이 있으므로[28]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학생봉사와 같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상 실습 환경에서는 임상 현장 지도자의 지지와 정서적 차원의 교육, 자기성찰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이 간호대학생의 회복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회복력은 4점 만점의 평균 2.91점이었고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5] 평균 2.68점보다 높았다. 회복력은 인구, 상황 및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 소진 및 소모 뿐만 아니라[28] 간호 전문직관[15]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성격이었는데 3~4학년 간호대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29]에서 외향적인 학생이 내향적인 학생보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았고, 2~4학년 간호대학생 27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는 성격 강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어 개인의

태도와 심리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성격특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한다면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외향적인 성격일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았으므로 내향적 성격을 가진 학생들을 주의깊게 살펴 이들을 중심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격 성향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은 전공만족도이었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난 연구[29],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가 확인된 또 다른 연구[3]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학년별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개인의 일반적 특성이나 각 학교마다 교과 과정, 운영 방식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결과에 반영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간호교육기관은 각 대학별로 입학한 신입생부터 전공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준별로 구성하여 장기적인 중재를 적용한다면 전문직 자아개념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요인은 임상실습스트레스로 높은 수준의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전문직 자아개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 4학년 간호대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15]에서 임상실습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간호학부과정에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좀 더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습프로그램

〈Table 4〉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in Nursing Students (N=110)

Variables	B	SE	β	t	ρ
(Constant)	58.18	5.17		11.26	<.001
Application motivation (aptitude or interest)	-0.09	0.37	-.01	-0.24	.811
Satisfaction of major (satisfied)	7.33	1.75	.28	4.19	<.001
Desired occupation (clinical nurse)	2.12	1.68	.09	1.26	.210
Subject health status (good)	0.01	0.32	.00	0.04	.972
Character (extrovert)	7.68	1.52	.32	5.04	<.00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ied)	-1.22	1.86	-.05	-0.66	.514
Change of thinking about career path after clinical practice (maintain or positive)	1.46	1.89	.05	0.78	.440
Clinical practice stress	-3.46	1.25	-.18	-2.77	.007
Resilience	7.36	1.35	.38	5.45	<.001

$R^2=.68$, Adjusted $R^2=.65$, $F=23.83$, $p<.001$

† Dummy variable reference was Application motivation (purpose of employment), Satisfaction of major (unsatisfied), Desired occupation (official or etc) Religion (no), Subject health status (bad), Character (introvert),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unsatisfied), Change of thinking about career path after clinical practice (negative or do not know).

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는 5점 만점의 평균 2.81점이었고, 4학년 간호대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8] 평균 2.90점으로 나타나 중간이상 수준이었다. Kang과 Yang [30]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잇따른 임상실습 스케줄 변동과 감염의 우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되었고 임상실습의 영역 뿐만 아니라 실습환경의 다양성도 축소되었음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간호교육기관에서는 임상실습기관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되도록 빠르고 명확한 내용 전달과 실제적인 감염 예방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의 불안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한된 임상실습은 간호교육의 질적 저하와 역량 개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가상과 현실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메타버스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실습 교육으로 보완한다면 이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30].

본 연구는 국한된 일부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혐오민감성이 전문직 자아개념의 영향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간호대학생 대상의 혐오민감성 정도를 확인하였다는 점과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전략에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성격 성향을 고려하고 전공만족도와 회복력을 향상시키며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이들의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이 확립되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혐오민감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회복력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회복력, 성격, 전공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회복력이었으며 65.0% 예측 설명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회복력, 성격, 전공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이를 토대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수 외에 전문직 자아개념과 관련성이 규명된 선행연구에서의 변수들을 포함하여 통합적 관계의 구조적 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혐오민감성 도구는 개인의 보편적인 혐

오감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의 변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경험하는 혐오감에 대한 깊이 있고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질적 연구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의 방법론적 연구를 제안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

1. Yoo JH, Choi HJ.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p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3):553-561. <https://doi.org/10.5762/KAIS.2019.20.3.553>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Survey on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Internet]. Sejong: Korea Policy Briefing; 2022 [cited 2022 November 14]. Available fro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499>
3. Chae Mo. Self-Efficacy, Career Identit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9;17(7):147-156. <https://doi.org/10.14400/JDC.2019.17.7.147>
4. Arthur, D.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92;17(6):712-719. <https://doi.org/10.1111/j.1365-2648.1992.tb01969.x>
5. Kim NH, Park SY.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Retention intention in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12):157-166. <https://doi.org/10.5762/KAIS.2019.20.12.157>
6. Kwon YE, Kim SY.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7):414-422. <https://doi.org/10.5762/KAIS.2019.20.7.414>
7. Yang KM.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Medit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9;9(8):455-466. <http://doi.org/10.35873/ajmahs.2019.9.8.040>
8. Kang MA, Lee SK.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6;22(4):452-461. <http://doi.org/10.5977/jkasne.2016.22.4.452>
9. Zamanzadeh, V., Valizadeh, L.R., Aminaie, N., Yousefzadeh, S., (2014). First and Fourth-Year Student's Perceptions about Importance of Nursing Care Behaviors: Socialization toward

- Caring. *Journal of Caring Sciences*. 2014;3(2):93-101.
<http://doi.org/10.5681/jcs.2014.010>
10. Özkan, İ., Taylan, S., Adbelli, D., Yilmaz, F. T.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disgust sensitivity and caring behaviour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21;54:103090. <https://doi.org/10.1016/j.nepr.2021.103090>
 11. Hadjittofi, M., Gleeson, K., Arber, A. The experience of disgust by healthcare professional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20;110:103720. <https://doi.org/10.1016/j.ijnurstu.2020.103720>
 12. Consedine, N.S., Windsor, J.A. Specific disgust sensitivities differentially predict interest in careers of varying procedural-intensity among medical students. *Advances in Health Sciences Education*. 2014;19:183-201. <https://doi.org/10.1007/s10459-013-9469-1>
 13. Goerdeler, K.J., Wegge, J., Schrod, N., Bilinska, P., Rudolf, M. "Yuck, that's disgusting!"—"No, not to me!": antecedents of disgust in geriatric care and its relation to emotional exhaustion and intention to leave. *Motivation and Emotion*. 2015;39:247-259. <https://doi.org/10.1007/s11031-014-9431-4>
 14. Ab Latif, R., Nor, M. Z. M.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during Clinical Practice among Diploma Nursing Students. *The Malaysian Journal of Medical Sciences*. 2019;26(2):88. <https://doi.org/10.21315/mjms2019.26.2.10>
 15. Lim YJ.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19(8):649-664. <http://doi.org/10.22251/jlcci.2019.19.8.649>
 16. Stephens, T. M. Nursing Student Resilience: A Concept Clarification. *Nursing Forum*. 2013;48(2):25-133. <https://doi.org/10.1111/nuf.12015>
 17. Zhao, F., Guo, Y., Suhonen, R., Leino-Kilpi, H. Subjective well-being and its association with peer caring and resilience among nursing vs medical students: A questionnaire study. *Nurse Education Today*. 2016;37:108-113. <https://doi.org/10.1016/j.nedt.2015.11.019>
 18. Hong HH, Kong JH, Kang HS, Jeong HS, Yang SK. The Study o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Ego-Resilienc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014;2(2):98-106. <http://doi.org/10.15205/kschs.2014.2.2.98>
 19. Moon MY, Hwang SY. Impact of Character Strengths on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6;16(8):403-418.
 20. Lee MS, Ha YO.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12):8738-8744. <https://doi.org/10.5762/KAIS.2015.16.12.8738>
 21. Haidt, J., McCauley, C., Rozin, P. Individual differences in sensitivity to disgust: A scale sampling seven domains of disgust elicit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94;16(5):701-713. [https://doi.org/10.1016/0191-8869\(94\)90212-7](https://doi.org/10.1016/0191-8869(94)90212-7)
 22. Lee SA, Kim JH, Hyun MH.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Disgust Scale-Revised(K-DS-R).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9;14(3):549-561. <https://doi.org/10.17315/kjhp.2009.14.3.005>
 23. Beck, D. L., Srivastava, R.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91;30(3):127-133. <https://doi.org/10.3928/0148-4834-19910301-08>
 24. Kim SL, Lee J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 - 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5;11(1):98-106.
 25. Connor, K. M., Davidson, J. R.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2003;18(2):76-82. <https://doi.org/10.1002/da.10113>
 26. Baek HS, Lee KU, Joo EJ, Lee MY, Choi K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Psychiatry investigation*. 2010;7(2):109. <https://doi.org/10.4306/pi.2010.7.2.109>
 27. Seo WH.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master's thesis]. Daegu: Kyungpook University; 2007.
 28. Thomas, L. J., Asselin, M. Promoting resilience among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education.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18;28:231-234. <https://doi.org/10.1016/j.nepr.2017.10.001>
 29. Kim SJ. Effects of 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ion of Nurse on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8;25(1):1-10. <https://doi.org/10.7739/jkafn.2018.25.1.1>
 30. Kang DHS, Yang J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21;33(5):509-521. <https://doi.org/10.7475/kjan.2021.33.5.509>

Factors Influencing Disgust Sensitivity,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Resilience in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Cho, Jung-Hee¹⁾ · Cho, OK-Hee²⁾

1)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self-concept.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August to October 2022, targeting 110 students in the 3rd and 4th grades at three universitie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ofessional self-concept according to application motivation ($F=5.43$, $p=.006$), school record ($F=3.24$, $p=.043$), major satisfaction ($t=-6.38$, $p<.001$), desired occupation ($F=9.30$, $p<.001$), participant health status ($F=4.31$, $p=.016$), character ($F=25.29$, $p<.00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5.36$, $p<.001$), and change of thinking about career path after clinical practice ($t=2.78$, $p=.006$). Professional self-concept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clinical practice stress ($r=-0.37$, $p<.001$) and resilience ($r=0.66$, $p<.001$). The variables affecting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self-concept were resilience ($\beta=.38$, $p<.001$), character ($\beta=.32$, $p<.001$), major satisfaction ($\beta=.28$, $p<.001$),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beta=-.18$, $p=.007$); the explanatory power was 65%. **Conclusion:** A professional self-concept enhancement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 positive professional self-concept in nursing students. As a strategy, it should reflect individual personality tendencies, improve major satisfaction and resilience, and reduce clinical practice stres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ism; Disgust; Psychologic Stress; Psychological Resilienc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 OK-He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ursing and Health,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Korea.

56 Gongjuhaehak-ro Gongju-si Chungcheongnam-do 32588, Republic of Korea.

Tel: +82-41-850-0306, Fax: +82-41-850-0315, E-mail: ohcho@kongju.ac.kr